

벽 허물어 4000명 임직원 ‘연결’... “금융 24시간, 이상무!”

Q 르포 | 하나금융 새 동지 ‘청라 헤드쿼터’ 가보니

서울의 뻥뻥한 빌딩 숲을 벗어나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섰다. 시야가 한층 넓어졌다. 탁 트인 도로 끝으로 거대한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다.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길게 뻗은 ‘청라 헤드쿼터’다. 지난 9월부터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하나둘 새 동지를 틀기 시작한 곳이다.

◆ 벽 없애고...4000명이 만드는 ‘연결의 공간’

여러공간이 유려한 곡선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층과 층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진 헤드쿼터는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만8503㎡(약 3만8872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 같은 구조에는 하나금융이 청라 헤드쿼터에 담고자 한 ‘연결’의 의미가 녹아 있다. 단순히 여러 계열사가 한 건물에 모여 근무하는 것을 넘어 임직원 간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촉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하나금융은 한 층당 1100평에 이르는 업무공간에 부서를 구분하는 벽을 없앴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그 뒤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다. 공간의 구조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를 바꾼다는 의미다. 하나금융은 청라 헤드쿼터를 ‘벽 없는 사무실’로 구현했다. 부서와 관계사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어 자연스러운 만남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협업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익숙했던 ‘내 자리’라는 개념도 흐렸

다. 직원들은 노트북을 들고 그날 해야 할 일에 맞춰 자리를 고른다. 집중이 필요하면 그에 맞는 공간으로, 동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 협업 공간으로 이동한다. 앱과 웹으로 좌석과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고 복지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5G 기반 무선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PC(VDI), 메신저, 소프트웨어 등도 적용했다.

하나금융의 청라 이전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9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에 이어 생명·증권·카드·저축은행 등 주요 관계사들이 앞으로 두 달에 걸쳐 차례로 합류한다. 이전이 마무리되면 약 4000명의 임직원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서울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청라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

◆ 데이터도 청라로...24시간 뛰는 ‘디지털 심장’

하나금융은 사람만 청라로 모이게 하지 않았다.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와 IT 인프라도 한곳으로 모았다. 청라 헤드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통합



벽 없는 청라 헤드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회의하는 모습(위)과 ‘청라그룹 헤드쿼터’ 전경. /나유리 기자·하나금융그룹

지하 7~지상 15층, 3.9만평 규모 부서·관계사 물리적 경계 허물고 자연스러운 만남 속 아이디어 생성 계열사 데이터·IT 인프라도 모아 2년 후 AIDC 전산실도 입주 예정

데이터센터’다.

2017년 문을 연 통합데이터센터에는 은행·증권·카드 등 계열사의 IT 시스템이 한 데 모여 있다. 지하 1층~지상 16층, 연면적 약 6만6000㎡. 숫자만으로는 좀처럼 규모가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등 수많은 금융 거래를 뒤에서 떠받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이 달리 보인다. 하나금융이 이곳을 그룹의 ‘디지털 심장’이라고 부



르는 이유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데이터센터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였다. ‘멈춤’이다. 금융서비스는 한순간의 장애도 곧 바로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건물 곳곳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장치가 겹겹이 마련돼 있었다.

침수 위험을 고려해 전기실은 지상 2층에 올렸다.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주요 설

비를 이중화하고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비상발전 설비도 갖췄다. 배터리 설비에는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한 냉각·안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평소에는 좀처럼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금융의 24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곳 역시 24시간 멈출 수 없다.

7층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한창이다. 약 2년 뒤 이곳에는 AI 데이터센터 전산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관하고 금융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데이터센터의 핵심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AI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연산까지 이곳에서 감당하게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제는 AI를 빼놓고 금융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기관 곳곳에서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늘어날 AI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용 전산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라 헤드쿼터를 둘러보는 내내 ‘연결’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다. 통합데이터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헤드쿼터가 서울 곳곳에 흩어진 사람을 한곳에 모았다면, 이곳은 데이터와 기술을 한데 모았다. 서울에서 청라로 옮겨온 것은 사무실만이 아니었다. 사람도, 데이터도 청라로 향했다. 하나금융이 그리는 미래도 이곳에 조금씩 모이고 있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하나금융 보험형제, 기본자본 50% 시험대

내년 기본자본 K-ICS 50% 도입

하나생명, 지급여력 14.26% 불과
미래이의 ‘실제 순이익’ 전환 과제
하나손보, 키스 비율 22.43%
2000억 유상증자 확보 자본 지켜야

하나금융 보험계열사인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의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키스) 비율은 각각 14.26%, 22.43%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50% 기준을 밑돌았다. 연 말 임기를 앞둔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의 이익을 기본자본으로 쌓아야 하고,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는 2000억원 유상증자로 회사 산출치상 50%를 넘긴 비율을 지키면서 적자를 끌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 자본확충 ‘질’ 같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지난 6월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7월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나생명도 최근 연 6% 금리로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두 회사가 올해 조달한 자금은 총 4500억원이지만 자본확충의 성격은 다르다. 두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 은 K-ICS상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전체 K-ICS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기본자본 비율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보통주 유상증자는 손실흁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직접 늘린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기본자본 K-ICS 비율에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

50% 기준을 도입한다. 내년 3월 말 기준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203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현재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K-ICS와 함께 기본자본의 축적 속도까지 관리해야 한다.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하나생명의 전체 K-ICS 비율은 138.3%였지만 기본자본 K-ICS 비율은 14.26%에 그쳤다. 하나손보도 전체 K-ICS 비율은 152.13%였지만 기본자본 비율은 22.43%였다. 전체 지급여력은 규제 기준을 웃돌았지만 자본 구성에서는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았던 셈이다.

다만 하나손보는 6월 말 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와 3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기본자본 비율이 50%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 이상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2000억원 유상증자와 3분기 손익, 요구자본 변동까지 반영한 수치”라고 말했다.

하나생명의 경우 1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이 전체 K-ICS 비율을 끌어올리

는 효과가 있지만 기본자본 비율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본자본을 늘리려면 이익을 누적해 이익잉여금을 쌓거나 보통주 자본을 보장하고, 요구자본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

◆ 생명은 이익 축적·손보는 적자 차단
하나생명의 상반기 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보장성보험 판매와 보험계약자(CSM) 상각 증가에 힘입어 193억원으로 31.3% 늘었다. 6월 말 보유 CSM은 8087억원이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인식할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계약기간에 걸쳐 나눠 이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CSM 증가가 즉시 기본자본 확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생명은 보장성 보험을 통해 확보한 미래 이익을 실제 순이익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손보의 과제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기본자본을 추가 손실로 다시 소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손보는 하나금융지주 연결 기준 상반기 71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194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거래적 가정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른 약 505억원의 일회성 손실을 제외하더라도 207억원가량의 손실이 남는다.

다만 6월 말 CSM 잔액은 28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3% 증가했다. 장기 보장성보험 확대를 통해 향후 이익 재원은 늘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보험손익을 개선해 유상증자 효과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다.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와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는 모두 2024년 1월 취임해 연임하고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김주형 기자 gh471@

염창역 등 11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 약 1.8만 가구 공급 예정

서울 양천구 염창역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일대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 약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초구와 마포구에서도 처음으로 후보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3년여 만이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이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염창역 남측으로 4222가구가 계획됐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에는 4040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같이탈 수 있는 효창공원앞역과 가까운 곳이다.

마포구의 첫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망원체육공원 인근은 94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지다. 망원한강공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와 가깝다. 서초구에서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동측이 918가구 규모 역세권 후보지로 선정됐다.

다른 역세권 후보지에는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1663가구),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858가구),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755가구)이 포함됐다. 저층주거지 후보지는 강서구 화곡역 동측(2335가구), 광진구 성동초 인근(254가구), 은평구 백련산서측(961가구),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935가구)이다.

국토부는 이달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예정 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주민의 향토를 높이거나 사업 구역을 조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성채리 기자 cr56@

KB국민은행 ‘GTX-C’에 4.4조 금융조달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와 금융약정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4조 3742억원 규모의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사업시행법인인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와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역을 시작으로 의정부, 서울 청량리, 삼성, 양재 등을 거쳐 수원역까지 있는 총연장 86.46

km, 정거장 14개소 규모의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완공 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0분, 수원역까지 5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금융주선은 19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했다. 선순위대출 3조 1300억원과 자본금 및 중·후순위대출 등 펀드 1조 2442억원으로 조달한다.

KB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대표주선기관으로 참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